

## 영국의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

최재희\*\*

1. 머리말
2. 영국 다문화 사회의 현황과 역사교육
  - 1) 영국 다문화 사회의 현황
  - 2) 다문화 환경에서 영국 역사교육의 문제점
3. Moving Here의 기록화 과정
  - 1) 추진배경 및 시범사업
  - 2) 추진과정
4. Moving Here 프로젝트와 역사교육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H00008).

\*\*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주요 논저: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8;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1.

## [국문초록]

지구화의 물결 속에 세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성격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후속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 특히 공동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사교육은 갈등과 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해와 공존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은 역사교육을 위한 보조 역할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이 글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역사교육의 긍정적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이너리티 기록에 대한 새로운 수집방식 및 역사교육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영국의 Moving Here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Moving Here는 소수민족의 이민사 기록 수집 및 발굴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기록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졌다. Moving Here는 28개 기관의 이민사 관련 기록 20여만 점을 수집했고 나아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들이 어둠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민자의 기록은 역사가 되었고 Moving Here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이너리티 스스로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일 것이다.

**주제어:** 기록, 기록물관리기관, 영국, 다문화, 다문화아카이브, 역사교육, 마이너리티, 정체성, 이민

## 1. 머리말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즉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에 대한 표상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데 핵심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우리’ 공동체의 과거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게 되며 나아가 암묵적으로 약속된 미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정체성 문제가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타자에 대한 시각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타자를 희생시키고 왜곡하며 심지어 그럴듯한 무엇인가를 창조하기도 하는 것이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피할 수 없는 한계로 다가올 때도 있다. 특히 정부가 한 국가의 역사교육과정과 내용의 기준을 통제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 경향이 강한 작금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우리’와 타자의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내부에도 반드시 소수자 즉 마이너리티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sup>1)</sup>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들 마이너리티도 역사교육에서 무시

---

1) 마이너리티는 그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마이너리티는 인종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이나 다른 나라 출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경제나 사회문화를 기준으로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제적 약자와 더불어 성적(性的) 소수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마이너리티로 지칭하기도 한다. I. Young,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Vol. 99, No. 2, 1989, pp.265. 이와 더불어 환경 위험에 노출된 사람도 마이너리티 그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J. Dryzek, "Political Inclusion and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 No. 3, 1996, p.475. 이 글에서는 ‘소수 민족 출신’을 중심으로 ‘육체적·사회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스스로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마이너리티를 정의

되고 배제되어 왔었다. 역사교과서에서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이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역사교육에서 마이너리티는 개성과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동화되어야 할 존재였다. 역사가 ‘가진 자, 승리자, 지배자의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가치로 정착되고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의 차원이건 국가 내부의 차원이건 간에 역사와 역사교육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폭력을 수반한 동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sup>2)</sup>

반면 역사에 대한 이해는 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를 성찰하는데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과거에 대한 평가 문제로 영원히 갈등하고 분열되지 않으려면 역사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sup>3)</sup> 역사교육은 국가 내외의 화해 과정과 단계를 보완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 국가 간 화해를 위한 중요한 매개로 역사교육이 활용된 예로는 20세기에 심각한 갈등과 폭력을 경험했던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등의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이 있다.<sup>4)</sup>

---

한다. 이들 집단은 자긍심이 낮고 특정 기회에서 배제되며 국민생활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다. L. Wirth, “Morale and Minority Grou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7, No. 3, 1941, p.415.

- 2)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동원하는 사례를 잘 제시하고 있는 저서로는 다음이 있다. E. Wolfrum, *Geschichte als Waffe- Vom Kaiserreich bis zur Wiedervereinigung*, 이병련, 김승렬 옮김, 『무기가 된 역사』, 역사비평사, 2007.
- 3) D. Shriver, *An Ethics for Enemies: Forgiveness in Politics*, Oxford and New York, 1995, p.4.
- 4)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공동 역사교과서로는 다음이 있다. Peter Geiss, Guillaume Le Quintrec ed., *Histoire L'Europe et le monde depuis 1945; Geschichte, Europa und die Welt seit 1945*, 김승렬 외 옮김,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2008. 유럽의 공동 역사교과서 작업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한운석, 「독일-폴란드간의 역사교과서 협력이 한일 역사교과서 분쟁해결에 주는 교훈」, 『서양사론』 75호, 한국서양사학회, 2002; 김승렬, 「속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49권, 경남사학회, 2003; 김승렬, 「두 개의

국가 내부적으로도 역사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배제되었던 마이너리티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매개체로 복원될 수 있다. 제한적이고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을 복원할 수도 있다. 자아와 타자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역사교육은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sup>5)</sup> 통일 이후 반외국인 테러 행위와 네오나치 지지자의 증가에 대항해 독일 문화부장관회의는 ‘관용과 연대를 위한 자르브뤼켄 선언’을 발표했다. 외국인과 소수민족 출신으로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 경향과 이와 연결된 폭력행위를 비난하고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sup>6)</sup> 이 선언은 역사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통혁명과 통신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오늘날 세계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해체는 지구화의 흐름에 장애요소였던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해소시켰다.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지구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물자와 서비스, 자본의 이동 뿐 아니라 인적 교류와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도 남북한에 칠천만 명 이상이 살아가는 단일 종족, 단일문화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칠백만 명의 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기도 하다. 화교와 주한미군을 필두로 해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중심

---

시선으로 바라본 관계사-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대화], 『역사교육』 101집, 역사교육연구회, 2007; 박재영, 「교과서협의를 통한 독일의 과거극복: 독일-이스라엘 교과서 협의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집, 역사와 교육학회, 2006 등이 있다.

5) E. A. Cole, ed, 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pp.15-19.

6) 한운식,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의 역사교육: 문화부장관 결의안과 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18, 2009, 96쪽.

으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이기도 하다. 이제 교류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간과 문화와의 공존과 소통, 상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교육은 갈등과 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해와 공존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해 이 글은 역사교육의 긍정적 역할 수행에 기록물관리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록이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은 정체성과 자아 확인에 기여하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를 위한 촉매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풍부한 기록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촉진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sup>7)</sup> 역사교육을 위한 보조 역할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존재한다.

기록을 역사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선행연구로는 홍콩 공공 기록관과 호주 국립기록관이 제공하는 교육키트의 사례를 제시한 오향녕의 연구가 있다.<sup>8)</sup> 2007년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공주대학교의 『중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방안』<sup>9)</sup>은 기록과 역사교육을 연계하고자 한 첫 시도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구화와 다문화 사회와 크게 관련성이 없다. 다문화 사회를 전제로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역사교과서와 정책을 분석한 연구<sup>10)</sup>가 있고, 영국의 시민교육과 다문화사회를 연계한

---

7) National Council on Archives,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2001), pp.7-8.

8) 오향녕, 「역사교육의 또 다른 지평, ‘아카이브」, 『역사교육』 101집, 역사교육연구회, 2007.

9) 지수걸 외,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을 활용한 중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방안』, 국가기록원, 2007.

연구<sup>11)</sup>도 있지만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빠져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은 아니지만 같은 문화기구인 박물관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적 역할 확대를 모색한 연구도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sup>12)</sup> 이 글은 지구화와 다문화 사회에서 역사교육을 매개로 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 글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마이너리티 기록에 대한 새로운 수집 방식 및 역사교육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적합한 사례를 보여 주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일찍부터 박물관, 도서관과 더불어 대표적 문화기구인 기록물관리기관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지난 200년간 영국으로의 이민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The National Archives(이하 TNA)의 ‘Moving Here’가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Moving Here 프로젝트의 목적과 프로세스, 성과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과 이를 국내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 10) 김한중, 「다문화사회의 역사교육-캐나다 BC주의 경우」 『역사교육논집』 4호, 역사교육학회, 2006.
  - 11) 박선영, 「영국의 시민교육과 다문화주의」, 『미래청소년학회지』 3권 1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06.
  - 12) 김인희, 「한국사회의 다문화성 고찰과 박물관교육을 위한 가능성 전망」, 『박물관교육연구』 제2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8; 지승현,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박물관교육연구』 제2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8; 서원주,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례로 본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 『박물관교육연구』 제2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8.

## 2. 영국 다문화 사회의 현황과 역사교육

### 1) 영국 다문화 사회의 현황

영국은 이민자의 국가이자 다문화 국가이다. 영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육지의 1/5과 인구의 1/6에 달하는 제국을 지배했던 국가였다. 영국으로의 이민 유입은 크게 2차 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무역과 관련된 일로 주로 식민지 지역의 주민이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 2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전개되었다. 이에 요구되는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또 제국이 해체되고 식민지가 하나둘씩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48년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 1948)』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당시 8억 명에 달하던 제국의 주민이 비자 없이 영국으로 이주해 거주하고 노동할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주로 인도 등 남아시아와 카리브 출신들이 영국으로 이주해 왔다.

그러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자본주의의 호황이 사라지고 주기적인 불황이 반복되면서 이민정책도 변경되었다. 일자리 문제 등을 빌미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결국 노동허가를 받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영국 태생인 사람만 영국으로 이주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이민이 규제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민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4대 자유(상품, 자본, 서비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과 더불어 이민의 물결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소비에트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연합에 가담한 중동부유럽 출신이 이주민의 다수

를 점하는 모습을 보인다.

1971년 영국 인구는 5천2백만 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의 수는 약 2백40만 명으로 전체의 4.55%에 해당했다. 2001년에 그 수는 4백30만 명으로 증가해 영국 전체 인구의 7.53%에 달했다. 2011년 인구센서스 결과 영국의 전체 인구는 63백20만 명이었다. 2001년과 11년 사이의 10년 동안 4백10만 명이 증가해 7%에 달하는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2년 6월 이전 1년 동안 각각 515,000명이 이민으로 유입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52,000명이 해외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으로 이민 온 사람 중 45%가 유럽연합 출신이었다. 이들 중 62,000명이 2004년 5월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에스코니아, 헝가리, 라크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출신이었다. 유럽연합 출신을 배제한다면 최대 이민 송출 국가는 인도(12%), 중국(8%), 파키스탄(8%), 폴란드(6%), 호주(5%)의 순이었다.<sup>13)</sup> 이러한 수치들은 영국에서 지금도 인적 유입과 유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이민과 관련하여 2011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하면, 잉글랜드(5천3백만 명)와 웨일스(3백10만 명)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13%인 7백50만 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이 비율은 1991년의 7%와 2001년의 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그 수도 1991년의 3백60만 명과 2001년의 4백60만 명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통계는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민자의 자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

1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p.11.

14) 2010년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신은 3천2백5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6.5%에 달하는 수치이다. 외국 출신 가운데 1천2백30만 명이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이었고 2/3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유럽연합 이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K. Vasileva,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34/2011, p.2.

따라서 2011년 인구센서스에 포함된 인종별 분포도는 영국의 다문화 정도를 이해하게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인종별 분포는 기회의 평등과 소수민족 차별 금지 정책을 위해 1991년부터 처음 조사되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백인의 비율은 86%였다. 이 중에서 영국 국적을 가진 백인이 80.5%를 차지했다. 영국 국적 백인의 비율이 2001년의 91.3%와 1991년 94.1%에서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유색인종을 출신 국적별로 구분하면, 인도 출신이 2.5%, 파키스탄이 2%, 방글라데시가 0.8% 중국이 0.7% 다른 아시아지역 출신이 1.5%를 차지했다. 아프리카와 카리브 출신이 각각 1.8%와 1.1%였고 아랍 지역 출신도 0.4%를 점하고 있다.<sup>15)</sup>

이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역사교육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좋은 자료가 언어와 관련된 통계이다. 이민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은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사용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지만 정작 영어의 고향인 영국에 살아가는 사람의 상당수가 영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주민의 92.3%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7.7%에 해당하는 나머지 4백20만 명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민자와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의 경우 언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런던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2.1%로 급증한다. 런던 중동부에 위치한 자치구 뉴엄(London borough of Newham)에서 이 비율은 무려 58.6%로 치솟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거주하는 사람 중 1.3%에 달하는 726,000명이

1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England and Wales, 2011

<http://www.ons.gov.uk/ons/rel/census/2011-census/key-statistics-for-local-authorities-in-england-and-wales/rpt-ethnicity.html>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138,000명(0.3%)은 아예 영어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런던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각각 4.1%와 2.0%로 증가한다.<sup>16)</sup>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하에서 영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소외가 가속화되었으며 사회 자체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민족 출신은 영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했다. 이것은 정치·사회·문화·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위계질서의 하층으로 편입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소수민족 출신은 이제 영국사회의 대표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이 되었다.

## 2) 다문화 환경에서 영국 역사교육의 문제점

이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이 교육 분야,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역사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갔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자율적인 교육체계를 갖고 있었다. 학교 교과목의 선택은 지방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ies)의 몫이었고, 교사들은 수업 내용과 진행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처(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1988년에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역사를 포함한 모든 기본 교과목을 정부가 승인하는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제도화되었다. 영국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이어졌고 이를 ‘역사전쟁(history war)’으로 부르기도 한다.<sup>17)</sup> 여러 차례 수정과 개편을 거듭한 후

1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nguage in England and Wales, 2011.  
<http://www.ons.gov.uk/ons/rel/census/2011-census-analysis/language-in-england-and-wales-2011/sty-language-in-england-and-wales.html>

17) R. E. Duun, "The Making of a National Curriculum: The British Case," The History Teacher Vol. 33, No. 3, 2000, pp.395-396.

등장한 역사 커리큘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국사, 특히 잉글랜드 역사의 강화였다. 이는 영국인의 일체감을 강조함으로써 영국사회가 안고 있는 인종과 계급, 남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18)</sup>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에서 사회통합으로 관심과 초점이 변경되어 갔다. 이는 부분적으로 1997년 등장한 노동당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이 미친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학계에서 마이너리티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재도 충분하지 못하며 제대로 학습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마이너리티의 역사는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축소되거나 배제된 상태였다. 마이너리티는 역사교육에서도 동화를 강요받고 소외된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학생들은 자국 내 흑인보다 미국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영국으로의 이민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 개입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소수민족 출신은 유럽사나 2차 대전에 대한 역사가 자기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백인 학생은 아시아 또는 흑인 영국인의 역사에 흥미가 없었다. 학교에는 유색인종 출신 영국인의 역사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sup>20)</sup>

소수민족에 대한 자료가 있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역사교과서에는 노예화 과정과 노

---

18) 윤세철, 최상훈, 「역사의 유용성과 역사교육목표」 『역사교육』 87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153쪽.

19) B. Norwich, “Education, Inclus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Recognising and Resolving Dilemma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0, No. 4, 2002, p.484.

20) R. Hasted, “Social inclusion at The National Archives,”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2005.

예선, 카리브 주민들의 삶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들어 있다. 그러나 문체는 유럽인이 도착하기 이전의 아프리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흑인의 역사는 ... 노예제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잠재의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 나의 백인 손자는 같이 노는 흑인친구들의 역사가 노예제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sup>21)</sup> 위의 언급처럼 마이너리티의 역사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양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아시아나 동유럽 출신의 최근 이민자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의지로 이민을 결행했고 체계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제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입장을 가진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노예제나 식민화 과정에서 이주했으며 비교적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진 이들은 사회의 기존 구조와 차별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sup>22)</sup> 역사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주로 흑인학생) 자신들의 교육 경험을 회상하면서 “(역사)커리큘럼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다(I don't exist)”고 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3)</sup> 흑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긍심 저하가 상당부분 흑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결여와 이에 따른 학교와 언론에서의 톨 모델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sup>24)</sup>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와 역사교육은 집단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회경제적 소외에 덧붙여 역사에서의 소외는 좌절감과 열등

21) M. Sherwood, "In this curriculum, I don't exist,"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2005.

22) L. Bartlett & B. J. Brayboy, "Race and Schooling: Theories and Ethnographies," The Urban Review, Vol. 37, No. 5, 2005. p.362.

23) M. Sherwood, "In this curriculum, I don't exist,"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2005.

24) M. Dresser, "Reaching out from the archive: minority history and academic method,"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2005.

감과 더불어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 이것은 다시 사회의 신뢰성과 안정에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지구화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고 해쳐나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 마이너리티의 정체성 문제이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장에 소개할 영국 사례는 단순한 시사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 3. Moving Here의 기록화 과정

#### 1) 추진배경 및 시범사업

TNA의 Moving Here는 지난 200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4개 그룹(동유럽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 출신, 카리브, 남부아시아 출신)의 이민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소수민족의 이민사 기록 수집 및 발굴에 대한 장벽 극복하고 이 기록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TNA가 Moving Here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정부의 정책 변화가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1997년 출범한 영국 노동당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영국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지속가능한 견고한 공동체(sustainable community)’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비전과 소속감이 있는 공동체, 상이한 배경과 환경의 사람들 간에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각의 상이한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공동체,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공동체를 의미했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촉매이자 동력으로서 고도의 공공적 의미를 가지는 문화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기록물관리기관도 정부의 핵심시책인 사회적 소외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sup>25)</sup>

TNA는 Moving Here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몇 차례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첫 프로젝트인 'CASBAH(Caribbean Studies and Black and Asian History)'는 Institute of Commonwealth Studies(이하 ICS)와 협력하여 전국에 걸쳐 카리브 연구 및 영국 내 흑인과 아시아인(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부아시아인)의 이민사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원본 검색을 제공하려는 프로젝트였다. 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me의 기금 지원을 받아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진행된 CASBAH 프로젝트에는 전국적 수집 능력을 갖춘 16개 기관<sup>26)</sup>이 참여했다.

먼저 1단계로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파트너 기관과 ICS 소장기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로 지역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 연구가 없었거나 제한적이었던 지역의 정보를 발굴하고 연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마지막 3단계는 기록물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특정 분야(영국 내 아프리카, 남아시아, 혼혈 후손의 역사와 삶)에 대해 추가 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

25) 노동당정부의 사회정책과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재희,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64-65쪽.

26) Black and Asian Studies Association, British Library, Goldsmith College,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Institute of Commonwealth Studies,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Institute of Race Relations,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Public Records Office(TNA의 전신), Society for Caribbe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Computing Centre, University of North London, University of Warwick 이상의 13개 기관은 파트너로 참여했고 British Film Institute, Lambeth Archives, Wolverhampton Archives and Local Studies Unit의 3개 기관은 연계(associate)기관으로 참여했다.

CASBAH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총 94개 기록물 소장기관(기록물관리기관 24곳, 도서관 및 시청각기록물보존소 68곳)로부터 관련 기록이 취합되었다. ISAD(G)를 기준으로 조사 및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383개의 컬렉션이 만들어졌다.<sup>27)</sup> 현재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제공하고 이미지 갤러리를 운영하는 CASBAH 홈페이지는 런던대학교 컴퓨터센터(ULCC)가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CASBAH 프로젝트와 더불어 런던 중북부에 위치한 해링게이(Haringey)의 흑인 노인회(Black Elders Group of the Haringey) 및 지역의 Bruce Castle Museum과 협력하여 ‘카리브 섬들에 대한 기억’이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기획되었다. 전시기록은 TNA가 소장한 1950년대와 60년대의 카리브 관련 사진들이었다. 노인회는 전시회 동안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전시회는 2002년 영국 뿐 아니라 카리브 지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시범 사업인 “The Community Access to Archives Project(CAAP)”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TNA가 기금을 지원하고 웨스트요크셔 아카이브(West Yorkshire Archives)와 해크니 아카이브(Hackney Archives),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 웨일스 중앙도서관, 북아일랜드 국가기록원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낙후한 산업지역인 웨스트요크셔와 런던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자 이민자 출신의 유색인종이 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해크니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기록물관리기관 사이의 최선의 실무,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아일랜드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은 “CAAP 프로젝트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이 사회통합, 공동체 발전, 기술 개발, 역사교육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전통적인 비이용자들이 기록물관리기관에 관

27) CASBAH, Progress Report, Vol. 20, 2002. p.6.

심을 가지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sup>28)</sup>는 소감을 남겼다.

## 2) 추진과정

위와 같은 시범사업을 거쳐 TNA는 본 사업인 Moving Here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프로젝트를 총괄 주도한 TNA를 포함해 28개 기관이 콘텐츠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들 콘텐츠 파트너들은 기록물관리기관과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학회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민사 관련 기록을 Moving Here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은 2차 대전 당시 카리브, 아일랜드, 남아시아 출신 병사들의 사진 등을 제공했고,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은 동인도회사의 그림과 캘커타 칼리가트(Kalighat) 예술품, 남아시아 산 식물류 등을 제공했다.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는 남아시아와 카리브 관련 고지도 등 지도 컬렉션을 제공했다. 1932년 설립된 런던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London)은 홀로코스트를 포함해 영국 유대인 공동체의 역사와 종교생활 관련 기록을, 흑인 교육자와 작가 등 개인들이 주도해 영국 내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 1981년에 설립된 흑인문화아카이브(Black Cultural Archives)는 흑인 투쟁단체나 청년 센터 등 조직의 기록과 1981년 봉기와 관련된 기록을 제공했다. 지방 아카이브는 이민자 등록 증명서와 같은 이민자 기록이나 아일랜드인의 소작증명서 등을 제공했다.<sup>29)</sup>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시청각자료를 포함

---

28) 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unity Archives: the answer to social exclusion?*, 2004, p.1.

29) 콘텐츠 파트너로 참여한 나머지 기관은 다음과 같다. Bradford Heritage Unit,

해 모두 20만 여점의 기록이 수집되었다.

위와 같은 기관 중심의 수집 방식은 이미 CASBAH 프로젝트에서 시도되었던 것으로 크게 색다른 것이 없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민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이야기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Moving Here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쌍방향(interactive) 수집 방식이 Moving Here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민 당사자이건 그 가족이건 누구나 분량에 관계없이 이민 관련 이야기와 사진 등 자료를 홈페이지의 Stories 섹션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한 자료와 이야기는 전 세계에 공개되기 때문에, 제공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공개 활용을 위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독점권 등의 이양에 동의한다는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만 자료를 접수한다.

Moving Here 홈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중점 수집 대상이었던 파키스탄·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 출신의 남아시아인과 트리니다드·자메이카·그레나다·도미니카 등 카리브 출신 이민자, 아일랜드 출신과 유대인은 물론 예멘·카타르·이란·이라크·터키·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출신과 남아공·앙골라·모잠비크·세네갈·소말리아·탄자니아·케냐·우간다 등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중국·홍콩 출신의 동북아시아인과 아이슬란드·이탈리아·폴란드·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러시아·슬로바키아·체코 등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제공한 총 1031건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와 경험은 아주 다양해 분류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대

---

British Library, Croydon Museum & Heritage Service, Hackney Museum, Haringey Museum and Archive Service, Hull city Archives, Lancashire Record Office, Leeds Museums & Galleries, Liverpool Record Office,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Luton Museum Service, Manchester Central Library, Manchester Jewish Museum, Museum of London, National Maritime Museum, North West Film Archive, Oxfordshire Museums, Tower Hamlets Local History Library and Archives, Walsall Local History Centre, Wandsworth Museum and Local History Service, West Yorkshire Archive Service.

체적으로 낯선, 영어 습득이나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영국사회에 적응 과정, 모국을 향한 그리움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색다른 갈등이나 영국인과의 문화 충돌, 시크나 이슬람교도로서 종교 갈등, 영국으로 이주하던 과정에서 겪었던 오랜 항해의 고통, 2차 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TNA가 Moving Here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이민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공하길 마냥 기다린 것은 아니다. TNA는 2004년부터 이민자 단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이들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지역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1단계와 2006년과 2008년 사이의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이민자 단체와의 접촉을 담당하는 5개 지역 파트너가 선정되었다. 지역 파트너는 East Midlands Museums Hub, West Midlands Museums Hub, London Museums Hub, National Museums Liverpool, MLAY Yorkshire였다.<sup>30)</sup> 박물관 허브가 지역 파트너의 중심이 된 것은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접촉이 더 용이하다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Moving Here를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각 지역 파트너에는 4-5개의 박물관과 아카이브 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East Midlands Museums Hub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레스터기록관(Record Office of Leicester)이나 레스터시립박물관(Leicester City Museums)과 같은 기관이었다. 레스터기록관은

---

30) 2002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각 지역박물관들이 더 많은 관람자를 끌어들이고 학교, 지역사회 및 개인학습자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박물관의 소장품 가치를 최대로 이용하고 박물관 직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르네상스(부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잉글랜드의 9개 권역별로 4-5개의 시범박물관이 선정되었다. 허브(Hub)라는 명칭의 시범박물관을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권역 내 다른 박물관에 모범이 되고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서원주,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례로 본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 60-62쪽.

1970년대 우간다로부터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한 출신 아시아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화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sup>31)</sup>

그럼,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Moving Here가 어떤 방식으로 소수민족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화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런던 지역 파트너인 London Museums Hub에는 크로이던박물관(Croydon Museum)과 해크니박물관(Hackney Museum), 빈민학교박물관(Ragged School Museum)과 레드브리지박물관(Redbridge Museum)이 참여했다.

크로이던박물관의 기록화 사업은 ‘크로이던 영상유산 프로젝트(Croydon film heritage project)’로 명명되었다. 박물관 측은 처음에 협력 대상이 될 소수민족 단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지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Nile Volunteers Network와 Yes Africa라는 두 조직을 선정할 수 있었다. 2002년에 설립된 Nile Volunteers Network는 원래 스와힐리(Swahili)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루어진 단체였으며, 2003년에 설립된 Yes Africa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아프리카 출신을 위한 조직이었다. 박물관과 조직 대표 사이에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논의 후 아프리카 출신의 결혼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영상과 사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며, 아프리카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박물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영상 제작에는 모두 28명의 아프리카 출신이 참여했다. 프로젝트팀은 이들에게 영상 교육을 담당할 전문 영상제작자를 고용했고 관련 장비를 구매했다. 이 장비들은 영상 제작이 끝난 후 이들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되었다. 각각 11차레씩 촬영과 편집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과정 동안 영상의 주제가 변경되었다. Nile Volunteers Network팀은 음식과 개인의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Yes Africa팀은 전

---

31) Record Office of Leicester, Annual Report 2005/2006, 2006, p.9.

통 결혼식을 재현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바꿔 아프리카 출신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그 결과물은 'A Taste of Croydon'과 'Isonga'라는 이름의 영상이었다. 영상물은 2005년에 박물관에서 처음 상영되었고 600개 DVD로 제작되어 학교와 단체에 배포되었다.<sup>32)</sup>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크로이던박물관은 2단계 후속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세대 간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물관은 이야기 수집과 전시 물품 수집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영상 제작과 더불어 인터뷰 기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2단계 동안 모두 9개의 필름이 제작되었고 'Roots and Shoots'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시사회는 4026명이 참여했다.<sup>33)</sup>

2010년에 필자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해크니박물관은 1986년 설립되었고 지역의 소수민족 공동체와 오랜 협력관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위층에 있는 해크니도서관은 열람실에 11개국의 언어로 된 도서를 구비할 정도로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이 협력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역의 쿠르드 출신 공동체였다. 쿠르드 공동체와 연계가 있는 인류학자를 자문으로 영입했다. 두 차례 공개 모임에 많은 쿠르드 출신이 참여했고 쿠르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록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쿠르드 족의 문화와 역사' 및 '영국에서의 쿠르드 정체성과 문화'를 주제로 전시회가 병행되었다. 동시에 쿠르드 사람들이 고안하고 주도한 전통노래와 드럼 연주, 터키 양탄자 제작, 패션쇼와 같은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매 전시회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사진과 같은 기록물을 수집했다.

1단계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쿠르드 공동체의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2단계 프로젝트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쿠르드 공동체로 참여 조직이 확대되었다. 2단계의 목표도 학교에서 활

32) J. Morris, K. Orchard, F. Davison, Report on the London Museums Hub project to records refugee heritage, 2004-06, 2007, pp.13-15.

33) F. Davison, K. Orchard, Report on the London Museums Hub Refugee Heritage Project, 2004-08, 2008, pp.14-15.

용할 수 있는 '쿠르드 문화에 대한 교재' 제작으로 초점이 변경되었다. 쿠르드 사람들의 이야기와 채록된 인터뷰는 Moving Here에 제출되었고 동시에 학교의 교육자원으로 제공되었다. 난민 유산 프로젝트(Refugee Heritage Project)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헤크니박물관의 프로젝트 과정은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제작되었고 쿠르드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웹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이 웹은 향후 쿠르드 문화유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다.<sup>34)</sup>

런던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이스트 엔드의 빈민을 중심으로 지역 역사를 발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민학교박물관은 방문자의 70% 정도가 초등학교생일 정도로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박물관이다.<sup>35)</sup> 이 박물관은 Moving Here 프로젝트 동안 소말리아 공동체(Ocean Somali Community Association)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말리아 난민의 이야기와 기록을 수집했다. 레드브리지박물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당 공동체(ARIANA Afghan group)와 협력해 아프간 출신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화했다.

다른 지역에서의 Moving Here 프로젝트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NA의 주도로 이민 관련 기록을 가진 콘텐츠 파트너들이 참여해 기본적인 기록을 공유한다. 그 후 지역 파트너를 선정하고 이들의 주도로 소수민족 공동체와 협력 관계를 이끌어낸다. 영상교육이나 ICT 교육을 제공하거나 전시회 같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록된 이야기와 더불어 일기, 사진 등 개인이 소장하던 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다.

---

34) F. Davison, K. Orchard, Report on the London Museums Hub Refugee Heritage, pp.12-13.

35) Ragged School Museum Trust's Annual Report, 2007-2008, p.2.

#### 4. Moving Here 프로젝트와 역사교육

이제 Moving Here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Moving Here 홈페이지는 온라인 아카이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집된 기록은 Moving Here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나아가 Moving Here는 수집된 기록을 역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Moving Here 홈페이지의 Schools 섹션은 초등학교 학생(7살-11살에 해당하는 Key Stage 2와 11살에서 14살에 해당하는 Key Stage 3)을 위한 역사교육 교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Schools 섹션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The Victorians'는 빅토리아 시대를 포함해 영 제국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왜 이들이 영국으로 왔는지, 이들의 이주와 제국의 역사와 관련성은 무엇인지, 영국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았는지 등에 대해 영상과 사진이 제공된다. 나아가 해당 주제에 대한 퀴즈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Britain Since 1948'은 지난 60년 동안 이민의 역사가 영국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The Holocaust'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어 유대인의 경험에 공감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유대인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친다. 마지막 'People and Place'에서는 먼저 영국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수와 비율을 알려주는 표가 눈에 띈다. 그리고 카니발과 같은 축제와 치킨 티카와 같은 음식이 이민자들의 전통과 문화에서 유래한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이민사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게임과 이미지 전시도 병행한다. 위와 같은 4가지 구성과 별도로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과 인종차별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학교에서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교사들을 위한 자료도 제공되어 있다.

이와 같은 Schools 섹션의 구성은 여러 차례 검토와 평가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먼저 2006년 2월과 6월에 TNA에서 Schools 사이트 초안을 검토하는 두 차례 예비 평가가 있었다. TNA의 교육자원 매니저(Education Resources Manager)가 주관하는 예비 평가에는 현직 교사가 참여했다. 교사들은 사이트의 주제와 내용, 강조점, 구성요소는 물론 디자인까지 세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말미에는 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었고 사이트 개편에 활용되었다.

이후 교실에서 현장 평가가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Moving Here 사이트를 활용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대상 학교는 1개 초등학교와 2개 중등학교였다. 런던에 소재한 이들 학교는 모두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상당수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등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을 보이는 공동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 명의 평가전문가를 선발해 2006년 10월과 12월 사이에 25차례에 걸쳐 현장 평가가 진행되었다. 사전에 교사와 어떤 주제를 택할 것인지 협의하고 평가 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육의 결과와 수업 시간, 순서, 이미지, 디자인, 검색, 접근성, 학생들 참여도, 교사들이 생각하는 개선점 등을 담은 질문지와 현장 관찰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평가 계획이 마련되었다. 교사들은 학습 목표를 담은 수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시했고 수업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부 경우 교사가 지적한 내용을 다음 수업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도 했다.<sup>36)</sup> 이렇듯 Schools 섹션은 세밀한 평가와 수정 끝에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Moving Here 사이트가

36) School 섹션의 예비 평가와 현장 평가에 대해서는 TNA Moving Here 담당 교육자원 매니저인 Nadia Arbach 등이 발표한 다음 글을 요약 정리했다. N. Arbach & M. Bazley & N. Boyd, Bringing User Testing Into the Classroom: The Moving Here In-Class Evaluation Programme, 2007.

실제 교육과정에 활용되기 바라는 원래의 의도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Moving Here 홈페이지의 또 다른 섹션인 Migration Histories<sup>37)</sup>는 카리브 사람들, 아일랜드인, 유대인, 남부아시아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이민 역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이민 집단마다 '기원과 이주 이유', '이동 경로와 경험', '영국 도착 및 정착과정에서의 경험', '정착 이후 성장과정', '자녀교육 및 일자리 경험', '문화와 축제', '정치적 측면'과 같은 세부 주제가 붙어있다.

위와 같은 범주에 따라 먼저 전문역사가의 설명과 해석이 소개된다. 일례로 카리브 출신 이민자의 '기원과 이주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자. "스페인, 프랑스, 홀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이 지역의 원주민을 축출하고 이방인 지주가 되었다. 인구의 다수는 노예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토지에 예속되었으며, 경제활동은 단 하나의 작물인 사탕수수 생산에 집중되었다.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은 민족, 문화, 언어가 매우 상이했고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유럽지배자의 언어사용은 필요하면서도 불가피했다. 노예 이름은 주인이 지었으며, 노예는 매매 대상이었으므로 주인의 이름에 의해 식별되는 존재가 되어 결국 유럽인의 성을 따르는 경향이 생겼다. 여성은 유럽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인종적으로 혼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 소금에 절인 고기와 생선, 말린 콩, 밀가루 반죽의 특징을 가진 이 지역 음식들의 기원은 음식을 대량으로 수입해 오랜 기간 보존해야 했던 무역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이 즐겨먹는 소금에 절인 대구는 17세기 포르투갈 선박이 뉴펀들랜드에서 잡아 이곳으로 가져온 것들이었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출신 노예는 역사적 연속성도 없었으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영국의 생활방식을 반복하고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노예들 가운데 일부는 기억이나 습관에 기초해

37) Moving Here 홈페이지 Migration Histories 섹션.

<http://www.movinghere.org.uk/galleries/histories/caribbean/caribbean.htm>.

아프리카에서의 문화를 재생했다. 종교의 제례, 신앙, 음악, 경작 방식은 모두 아프리카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었다.”<sup>38)</sup>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세부 주제별로 지도와 사진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져있다. Migration Histories 역시 중등학교 이상의 일반인이나 역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이민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섹션이다.

Moving Here 프로젝트의 교육, 특히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Moving Here 홈페이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역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나온 기록과 성과물은 모두 해당 지역의 교육교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주민과의 다양한 이벤트와 훈련 과정 또한 ICT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일부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중 84%가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고 응답했고 나아가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의사와 의욕이 있다는 반응이었다. 90% 이상의 참여자가 프로젝트 과정이 즐거웠다고 대답했다.<sup>39)</sup>

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문화기관에 대한 파급 효과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Moving Here 프로젝트에 지역 파트너로 참여했던 허버트예술박물관(The Herbert Art Gallery and Museum)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마이너리티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도하고 있다. 2009년의 Deaf History Project는 지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이들의 노동과 기억을 기록화한 사업이었다. 같은 해 진행된 Journey to the West: Chinese Community Project는 중국 음식과 축제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중국 출신의 인터뷰와 중국과 홍콩의 전통축제에 대한 기억을 기록화해 지역 학교에 교재로 제공했다. Empire at War는 2차 대전 당시 흑인과 아시아 출신의 참전 기

---

38) <http://www.movinghere.org.uk/galleries/histories/caribbean/origins/origins.htm>.

39) F. Davison, K. Orchard, Report on the London Museums Hub Refugee Heritage Project, pp.23-25.

역을 기록화하고 CD로 제작했다. 이 CD들은 학교에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2011년에 Key Stage 2,3,4를 대상으로 한 역사교재로 정식 채택되었다. A Night Out in Coventry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1940-50년대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하고 당시 10대였던 이들의 모습과 생각을 기록화해 전시한 프로젝트였다.

허버트예술박물관은 현재도 성적 소수자의 경험에 토대를 둔 영상 제작 기록 프로젝트(Queering Coventry)와 아시아계 등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숙한 영상을 보여주고 영어에 익숙하게 하는 프로젝트(Films in Community Languages),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과 자긍심 보호, 관계 개선을 위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Braving the Element) 등을 진행하고 있다.<sup>40)</sup>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레스터 시는 우간다 출신 아시아인의 레스터 정착 40년을 기념해 아카이브 기록과 구술사 기록을 통해 지난 40년간 이들이 영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왔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회 개최하면서 또 다른 기록 수집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sup>41)</sup> 영국인 어머니와 상하이 출신 아버지를 둔 Yvonne Foley은 2차 대전 후 2만 명에 달하던 중국인들의 강제 추방당했던 이야기와 남은 가족의 이야기와 사진을 Moving Here에 제공했었다. 그녀는 현재 그 역사와 기록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홈 페이지 운영하고 있다. 그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006년 1월에 리버풀 항구에 중국선원 기념탑이 건립되었다.<sup>42)</sup>

최근 영국의 역사교육에서 주목되는 지역사에 대한 관심은 ‘가족-지역-국가-세계’의 맥락에서 정체성 형성과 연관을 가진다. 이는 역사와 학생이 맺는 개인적 관련성을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

40) <http://www.theherbert.org/index.php/home/get-involved/communities/project-archive>.

41) Leicester City Museums, Service Improvement Plan 2005/6: Progress Report, p.11.

42) Half and Half: Liverpool and its Chinese Seamen.

[http://www.halfandhalf.org.uk/index\\_main.htm](http://www.halfandhalf.org.uk/index_main.htm).

가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학생의 참여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43)</sup> Moving Here 프로젝트와 이후 각 지역에서의 후속작업은 정체성과 연계된 지역사 교육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5. 맺음말

소수민족 출신이나 이민자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던 마이너리티 집단이 어둠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다른 이의 경험을 듣고 자신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Moving Here 프로젝트의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공공장소에서 소개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자긍심과 성취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이너리티 집단의 사회 참여를 자극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오히려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도 매우 인상적인 결과였다. 자신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이너리티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아니, 그 보다 더 소속감과 만족감, 자긍심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Moving Here 프로젝트는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마이너리티가 스스로 기록을 생산하고 이를 역사로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

43) 박주현, 「역사탐구 체험으로서의 영국의 지역사 연구」, 『역사교육논집』 14호, 2011, 8-10쪽.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역사가 역사 커리큘럼과 다른 과목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면의 한계 등 어떤 이유에서건 공적 역사교재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Moving Here 홈페이지 같은 유형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열게 하고 향후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고 본다. … 우리는 아프리카 출신 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 출신도 서로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의 설립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sup>44)</sup>는 Yes Africa 출신의 언급은 Moving Here 프로젝트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본다. 뿌리 없는 민족으로 평가 받는 집시 공동체도 자신들의 삶과 관습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고 후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보였다.<sup>45)</sup> 이처럼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성과로 다가온다. 이 글에서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현재 영국에는 소수민족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해 활용하는 다문화 아카이브가 다수 만들어지고 있다.<sup>46)</sup>

이민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 내부의 마이너리티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아 위축을 경험하는 정체성 상실의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47)</sup>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피하고 외면해서 해

---

44) F. Davison, K. Orchard, Report on the London Museums Hub Refugee Heritage Project, p. 26.

45) Record Office for Leicestershire, Leicester and Rutland 홈페이지  
[http://www.leics.gov.uk/index/leisure\\_tourism/local\\_history/recordoffice/recordoffice\\_exhibitions/record\\_office\\_gypsy\\_roma\\_traveller.htm](http://www.leics.gov.uk/index/leisure_tourism/local_history/recordoffice/recordoffice_exhibitions/record_office_gypsy_roma_traveller.htm),

46) 영국의 다문화아카이브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했다.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_13\\_path\\_.aspx](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_13_path_.aspx)

47) 허미화, 「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59집, 2009, 293쪽.

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화기관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 및 도서관과 더불어 기록물관리기관은 다수집단으로의 강요된 동화나 사실상의 단(單)문화가 아니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부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기록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다양한 마이너리티 집단을 대변하고 이들의 일상을 기록해 역사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역사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 과정에 마이너리티를 포함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이자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일상아카이브와 다문화아카이브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 노력이 그 출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

## ABSTRACT

### History Education for Minority Group and the Archival Institutions in Britain

Choi, Jaehee

History education is of growing significance in relation with minority group's identity issue in an irreversible trend of globalization. Archives and the cultural institution can be a major player in the reforming the history education as conducted in Britain.

This paper deals with the Moving Here project led by The National Archives. The vision of the project is to overcome barriers to the direct involvement of minority ethnic groups in recording their own history of migration and to ensure this history is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schools. More than 200,000 digitised images and documents in the Moving Here have been selected from the 28 content partners' collections. In addition, TNA and the regional partners worked with minority ethnic groups to record their culture and stories. In doing so, real and lasting rel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ethnic groups has developed. The outputs of the project such as films and stories were distributed free for regional schools. The School section of the Moving Here provides a range of education resources. One of the most impressive outcome of the project is the minority's desire to have their own archives for identity and self-esteem.

Key Words: The National Archives, Moving Here, multicultural society,  
identity, history education, minority, migration